

농협, 농촌 활력화의 새 지평 연다



▲농심천심(農心天心)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 개최(농협 제공)

도시와 농촌 상생하는 새 농업 비전 제시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해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의 마음(農心)이 곧 하늘의 뜻(天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어 신도발이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농협의 새로운 운동이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 위원

등 내부 위원 6명, 사회 각계각층 외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농심천심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 각자의 분야에서 정책·사업 자문은 물론, 실행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진행될 계획이다. 김경진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 직무대행, 농협중앙회 이

사)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농심천심 운동을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대표적인 농촌 활력화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관원,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단속

통신판매·전통시장·대형마트까지 점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품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며,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품 인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식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진원, '민간투자기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투자·홍보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업 성장 촉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난 1월 21일부터 농식품 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를 이미 완료한 농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해 기업이 다음 성장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벤처 투자사(VC)와 창업 기획자(AC) 등 민간 투자사의 시장 검증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인 사업이다.

최근 농식품 산업은 기술 고도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초기 투

자 이후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서 추가 자금과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진원은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와 함께 농진원이 주관하는 박람회, 경연대회, 투자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추가 투자 유치와 협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동안 본 사업에 참여한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 등 4개 기업은 기업공개(IPO) 절차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농식품 분야를 대표하는 고성장 기업으

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관련 상세 내용과 공고문은 사업 누리집 및 농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해 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농진원은 매년 농식품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10대 기업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를 통한 단계 도약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진청, 국산 로봇착유기 효과 현장서 확인

착유 자동화 운영 현황 및 노동력 절감 효과 확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6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대응목장을 방문해 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낙농가 경영비 절감 및 스마트 낙농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로봇착유기 작동 과정을 살펴보고, 착유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와 개체별 착유 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유 시간 단축, 개체별 착유량·착유 횟수 자동 기록 등 로봇 착유기 도입 이후 농장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착유 작업은 노동력 비중이 가장 높고, 반복적인 업무라 낙농가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로봇착유기 도입은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등 관계기관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해 국산 로봇착유기 확산에 속도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6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국산 로봇착유기를 도입한 농가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농촌진흥청)

를 내고, 데이터 기반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착유 작업은 젖소 사육 노동력의 40%를 차지해 농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착유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면 50두 규모 농가 기준으로 연간 약 31%(1,300만 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개체별 착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료 급여 조절 등 농장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응목장에 설치한 국산 로봇착유기 개선모델(DairyBot K2)은 로봇팔을 개선, 착유 시간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138% 단축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유두 탐지, 유두 세척, 유질 검사 등 로봇 착유 관련 20여 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했다. 2021년 로봇착유기 국산화 성공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성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목우촌 mall

마음 가득한
설 선물세트

목우촌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